

### 23. 자연이 지키고 있는 산청에서 온 의성배추

수집은 대부분 농촌 현장을 찾아가서 한다. 그것이 맞다. 직접 시골 골골을 돌아다니다가 대부분 문득 누군가 만나 토종을 심는지 알아보거나, 심어 놓은 작물을 보고 토종인 듯싶으면 주인을 찾아 그 내력을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보령에서의 배추 수집은 좀 남다르다. 박물관을 설립하고 어느덧 몇 년, 나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씨앗에 대한 노후 소일을 잘 알고 있었다. 한담이지만, 박물관을 하는 사람들의 교류는 대개 유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좋은 유물이 있으면 소개도 하고 서로 교환하기도 하거나 구입하기도 한다. 물론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한턱을 거나하게 내고 박물관에 꼭 필요한 유물을 얻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 전화는 사실 탐탁하지 않았다. 씨앗을 가지고 흥정(?)하는 게 좀 그랬다. 그래도 얼굴이나 보고 친교도 할 겸 자리를 함께했다. 그런데 약속한 곳이 비싼 계장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네댓 명 정도가 나와 있더라는 것이다. 우스운 얘기지만 참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어렵게 만난 분이 바로 의성 배추로 여겨지는 토종 배추 씨앗을 기르고 있는 **양 선생이었다.**

그분은 농업기술센터를 정년퇴직 하신 분이였다. 간장 계장을 대충대충 먹고 배추를 심어냈다는 그의 산밭으로 향했다. 보령 읍내에서 약 30분은 족히 갔다.

그가 처음 이 배추를 - 그는 산청 배추라고 불렀다 - 만난 것은 공직에 있을 무렵 1984년경이라 했다. 84년, 이 해는 농촌진흥청에서 안완식 박사를 필두로 전국의 토종을 수집하기 이 전이었다.

우리나라 토종의 시발점이 되는 농촌진흥청의 토종 수집단 발족한 해가 1986년이다. 1986년은 우리나라 식량주권과 씨앗 주권에 있어 아주 의미 있는 해이다. 안 박사를 비롯한 수집단원 6명이 전국 농촌지도소 인력 7,000명의 도움을 받아 토종 수집에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만 칠천여 점을 수집했다.

이 시작은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바로 씨앗 자원에 대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맞물려 위기와 기회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얻게 된 해이기도 했다.

일찍이 세계열강들은 씨앗 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제국주의 팽창을 통해 식민지화하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나라의 씨앗을 가져간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씨앗을 맨 처음 탐을 낸 국가는 러시아였다. 1800년대 말쯤이었다. 청나라의 세력과 일본 세력이 한반도에서 다툰 때, 러시아의 세력이 개입하면서 한때 정권을 잡았을 때일 것이다. 그 후 미국이 조선의 정치를 개입하면서 아마 조미 조약이 체결되면서 최혜국 지위를 얻을 무렵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씨앗을 대거 수집해 간다. 그 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뒤늦게 일본에서도 모든 씨앗을 가져간다. 1985년 이전까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토종은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보유하게 된다.

그렇다면 첫 수집 단이 발족한 1986년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국제 사회의 유전자원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강대국의 이권에 의해 좌지우지됐는데, 특히 1992년 국제 협약은 그 중심에 서 있다.

1992년 이전에는 씨앗 자원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규정했다. 맞는 말이다. 인류 생존에 씨앗 자원은 절대적이었을 터, 어디 한 국가나, 누구 한 개인이 독점할 권리가 없는 것이 맞

다. 그러나 그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이 명분은 곧 후진국, 우리가 그랬듯이 씨앗의 중요성에 대해 미처 손을 쓸 새가 없는 나라들의 씨앗 자원이 인류공동유산이란 명분으로 선진국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 돼버렸다. 그러나 92년 즈음에 이미 모든 국가의 씨앗 자원을 손에 넣은 선진국들은 갑자기 돌변한다.

「씨앗 자원은 인류 공동 관심사다」라는 기치 아래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명분으로 생물의 멸종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국제 협약을 맺는데, 이것이 ‘생물다양성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이다. 이 멋들어진 수사로 만들어진 협약 속에는 자원의 개별국가관리를 선언하고 선진국들은 개별적으로 유전자원 보존 활동을 하게 되는 해가 1992년이다.

그러니까 86년부터 92년까지 7년 동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 유전자원 보존의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간에 국내에 남아 있는 토종 자원을 수집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 토종 자원을 ‘인류의 공동 유산’이란 명분으로 되찾아 오는 작업이 함께 이뤄진다. 우크라이나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전문가들이 우리 씨앗을 찾으러 나갔다. 만약 이 시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수많은 우리 토종 자원을 남의 나라 수중에 그냥 잡혀있게 할 뻔했다. 우리에게 아슬아슬한 씨앗 주권의 아찔한 7년이였다.

그런데 그 전이라니, 국가보다 그의 손이 빠른 셈이었다. 한번 토종을 찾아보자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래된 일이라 뚜렷한 기억은 없었지만, 비록 기억이 희미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작목 담당을 하면서 토종작물 대한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으면 전국에 편지까지 썼을까, 아마 작목 담당자의 사명감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새로 육종해 내놓은 작물에 대해 어떤 실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고 짐작만 하는 것은 토종에 관심을 가지는 지금 시기를 위한 말 핑계가 아닐까 하며 웃는다. 그에게 커다란 이슈나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싸한 말 핑계라도 좋을 정도로 그의 집념은 대단했다고 본다.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한 것은 두어 가지 있었다. 언젠가는 유독 단맛을 찾아가는 입맛에 한계가 오리라는 생각이었다. 나이 들어가며 어느덧 뽕짝이 좋아지고, 뽕짝의 흐름으로 걸음걸이의 박자를 맞추어 무렵 그의 맛도 옛 맛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세상 단맛을 쫓아 살다 보니 음식도 어느덧 단맛에 길들어 있는데, 이 세상의 단맛이나 음식의 단맛이 이제는 그 걸음걸이를 쫓아갈 수가 없을 무렵 그는 옛 맛을 하나씩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향이 강한 대파가 좋았고, 진액이 불쑥 나오는 상추 맛이 생각났다. 당도가 높은 참외보다는 향내가 더 좋은 개구리참외가 기억났고, 고소함이나 아삭함보다는 질기지만 알싸한 배추 맛을 찾았다. 토종만이 가지고 있는 맛이였다. 어머니의 텃밭 맛이였다.

그는 전국의 농촌지도소 작목 담당자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냈다. 물밀듯 닥쳐오는 소득 주도 농업 현장에서 오히려 되돌려 옛 맛을 찾는다는 무모함에 대한 주변 사람들 또한 기억하고 있었다.

80년대가 그랬다. 뭔가 잘 살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수 없는 시도를 했다. 그래서 빚을 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의욕적으로 농업에 대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도 그랬다. 한 해에 수확이 많아지면 이듬해는 더 많은 신품종을 씨앗 상회에서 찾았다. 고추며 수박이며 많은 것이 그때 없어졌다. 토종 참깨 씨를 잃지 않으려고 장마철에 아등바등한 어머니를 핀잔한 나나 지도소 주변 동료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

그는 편지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심정이라니. 펜팔 하자고 편지 보내놓고 답장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며칠을 기다렸다. 그러나 오지 않았다. 옆자리 동료들이 그의 순진함을 비웃었다.

그리고 며칠, 마침 그때 동료들이 환호성을 쳤다. 비웃었지만, 두 가운데서 왔다니 놀라운 일

은 분명했다. 그때 온 것이 바로 토종 배추와 개구리참외였다. 개구리참외는 성환에서 보내왔고, 배추는 산청에서 왔다.

우리가 간장게장 집을 떠나 그의 산밭 농장을 찾았을 때, 부인 혼자 땀을 흘리며 밭을 가꾸고 있었다. 내가 불러낸 탓일 텐데 매우 친절하다. 찬 음료가 나와 빈손으로 간 손이 부끄러웠다.

- 저거유.

그가 힘없이 말했다. 뭐 이까짓 것 가지고 간장게장까지 사주며 씨를 얻나 하는 투였다. 내 느낌이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속으로는 간장 게장값이 꽤 아까웠던 모양이다.

그가 가리킨 곳은 과수원이라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과실 나무를 무질서하게 심어 놓은 농원이었다. 그곳에는 아닌 게 아니라 대추나무나 살구나무 등이 모두 토종이었다. 그 과실 나무 밑으로 풀보다는 파란 게 지천으로 깔린 배추들이 보였다.

그러더니 그는 성큼성큼 커다란 살구나무 밑으로 가더니 흰 가마니때기를 들쳤다.

- 작년에 여기서 씨를 털어서 뿌렸으니 남아 있을 규. 우린 따로 보관 안 혀.

- 흔하다 흔혀! 개성에 왕 씨들 같네 그려.

다들 한마디씩 했다.

가마니를 들추자 그 밑에는 배추씨들이 검불들 속에 시커멓게 쌓여 있었다. 같이 온 지인이 한마디 했다. 이런 걸 그렇게 간장게장까지 사주며 부탁까지 하며 얻어야 하느냐 하는 투였다.

양 선생은 그렇게 어렵게 씨앗을 전해 받았지만, 첫해인가 시험 재배를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심지 못했다. 업무가 바빠던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내준 분의 성의도 있고 그냥 버릴 수 없어 추억이나 맛을 기억하는 몇몇 농가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본댁의 산밭에 뿌려 놓았다. 나중에 은퇴하면 내려가 소일하며 지낼 땅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두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갔다.

그런데 이듬해 그곳에 갔을 때 그의 밭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누구도 거두지 않았고, 누구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그의 산밭에는 배추가 전 해에 뿌린 것보다 많이 나 있었다. 어느 것은 겨울을 난 듯했고, 어느 것은 새싹을 받은 것도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개구리참외도 한 무더기 뻗뻗하게 나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였다. 그 뒤로 씨를 받아 본 적이 없고, 일부러 심어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 그 사람들이 씨를 보내주면서 이름을 안 보냈어. 산청에서 왔으니 산청 배추라고 불러. 보령 배추라고 부르기엔 염치 읍잔여. 개구리 참외야 온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살펴보니 배추는 의성 배추와 비슷했다. 개구리참외는 이미 교잡이 심하게 일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울퉁불퉁한 면은 거의 매끈해졌고, 배꼽은 없어졌다. 그렇다고 어떨랴!

- 이게 제초용이여. 풀 나는 게 싫고, 제초제 하는 게 싫고. 어찌것어? 배추로 풀을 잡고, 먹고 싶을 때는 먹는 거지. 봄에는 봄동 나물, 여름에는 물김치, 가을에는 포기김치. 포기김치 담글 것만 조금 손이 가면 되야. 이따 갈 때 물김치 조금 가지고 가서 맛 보셔.

그는 그렇게 벌써 40년째 토종을 보관하고 있었다. 사실 그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지키고 있지만.